

# DANCING GRID

## 2023.2.1~3.25

### SPACE B-E GALLERY 3F

# 'Rhythm & Forms'

#### Creators

**Kim Minwook**, Kim Hyunsung, Liberal Office by SWNA, **Bae Sejin**  
Seo Yoonjung, STUDIO MIICON, Studio when, Studio S.O, **Shin Dain**  
**Yun Jiye**, **Lee Woojai**, **Im Jungjoo**, **Jungkim Dowon**  
Jung Jisook, **Pollygarden**

#### Dancing Grid\_창작의 열개를 만드는 과정

예술과 건축 그리고 전방위적 디자인에 걸쳐 기초가 되는 그리드 시스템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매우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준다. 그리드와 함께 춤추는 발상의 전환, 그리드를 시작으로 창의성의 확장과 변형에 관한 이야기가 이번 전시의 주제이다. 가장 단순한 작업의 과정에서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창작의 시조 격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의 무질서함 속에서도 새로운 패턴을 찾을 수 있듯이, 격자형의 그리드를 시작으로 그 틀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로이 춤을 추는 상상을 해본다. 격자의 그리드가 우리를 어떤 한정된 사고의 틀에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듯 유연함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상상력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었던 그것을 다시 현실로 구현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 'Grid'. 자연으로부터 우연한 규칙을 찾아 패턴을 발견하거나 그리드를 통해 움직이는 선을 재창조하는 생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건축과 공예 분야에 걸쳐 나누어 보려고 한다. 스페이스 비이는 이번 전시는 그리드 자체에 대한 전개라기보다는 사고의 유연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을 거 같다.

#### Space B-E

[www.spacebe.co.kr](http://www.spacebe.co.kr)

#### Instagram

스페이스비이 @be\_archi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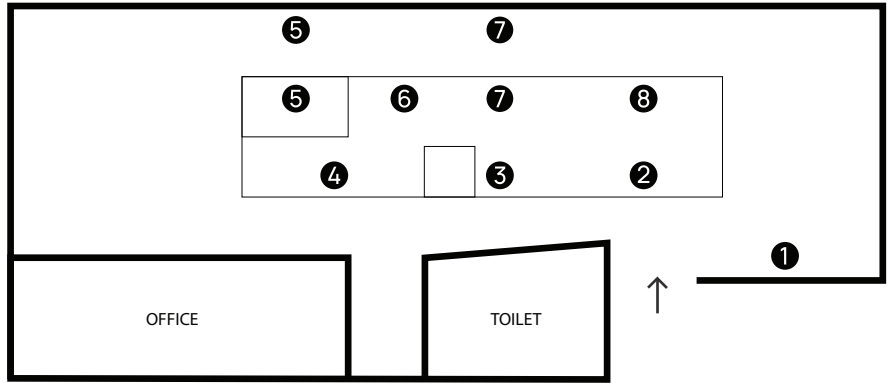
윤현상재 @younhyun\_official

#### Space B-E Gallery 3F

'Rhythm & Forms' 두 키워드로 출발된 자연 패턴의 유추 그리고 은유에 대한 이야기를 공예 분야로 확장시켜 보고자 한다.

# SPACE B-E GALLERY 3F

## FLOOR PLAN



## CREATORS

### ① 폴리가든 Pollygarden

폴리가든이 만드는 입체물은 작은 패턴블록에서 시작한다. 서로 다른 패턴 블록들이 조합되어 판이 되고 판들이 합쳐져 입체물이 된다. 평면작업에 익숙하기 때문인지, 폴리가든은 도자기로 물건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납작한 판을 입체물로 변화시키듯이 작업하곤 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입체물이 되지 않은 평평한 타일 자체가 조각이 되는 장면을 만들었다.

### ② 김민욱 Kim Minwook

끝에 이를 때까지 드라마는 계속 이어진다. 맞거나 물러서고 양극의 사이에 놓인 채 갈등을 하기도 한다. 고요를 기다리며 나무를 깎고 가슴에서 커지는 소란한 소용돌이를 내보내며, 김민욱 작가는 나무에서 찾은 평정을 나누길 희망한다.

### ③ 신다인 Shin Dain

신다인 작가는 일상의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는 사고의 흐름을 조형적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을 해왔다. 때로는 간결하게, 어떤 날에는 끝이 날 줄 모르는 생각의 흐름이 만들어 내는 길들은 작가의 손을 거쳐 단순화된 형상으로 표현되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의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내면의 구조를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다. 하나의 형태가 그 만의 당위성을 가지기까지 작가가 어떤 사고를 하였고 그 사유들이 어떤 지점에서 교차하는지, 또 어디로 얼마나 뻗어나가게 되는지, 그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 ④ 임정주 Im Jungjoo

임정주 작가는 2022년 'black(검정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실험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black의 총 세 가지 결과물로 나무에 '막'이 스며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 물체가 아닌 '그림자의 색'을 조형으로 표현한 작품, 그리고 나무를 태우는 과정에서 생긴 '물질의 변화'로 인한 색의 변화를 연구한 작품을 선보인다.

### ⑤ 이우재 Lee Woojai

이우재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잊혀거나 방치된 것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술품이 전시된 하얀 벽, 공간을 둘러싸는 벽돌과 타일, 방을 구성하는 코너는 우리의 일상에서 배경으로 희미해진 요소들이다. 익숙함에 가치를 잃어버린 종이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촉감, 재질, 구성에 아름다운 특징이 담겨 있다. 이런 요소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으로 인식되길 바란다.

### ⑥ 윤지예 Yun Jiye

윤지예 작가는 타일을 매개체로 보편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들을 이끌어낸다. 타일이 붙은 공간에 들어서면 다양한 심상이 떠오른다. 산뜻한 색감의 조화는 소소한 기쁨을 주기도 하며 낱아 몇 조각 떨어져 나간 구석을 발견하면 쓸쓸히 시간의 흐름을 곱씹어 보기도 한다. 타일이 불러일으키는 모든 기억과 패턴이 남긴 인상을 작품에 녹여본다.

### ⑦ 배세진 Bae Sejin

'고도를 기다리며'는 사무엘 베케트의 동명 희곡을 모티브로 탄생한 시간과 반복의 이야기이다. 배세진 작가 역시 숫자와 점토 조각에 숫자를 기록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며 시간을 보낸다. 어느덧 35만 개 이상의 조각에 본인만의 시간을 기록한 그는 오늘도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

### ⑧ 정김도원 Jungkim Dowon

자연과 도시에서 구한 재료를 결합하여 새로운 물질을 제작한다. 흙, 소금, 오렌지 껍질, 질산은, 염록소……. 녹아내리거나 물드는, 부드러운 물질들의 사용은 정김도원 작가가 그 상호작용과 변화의 흔적을 기록할 수 있게 한다.

# DANCING GRID

## 2023.2.1~3.25

### SPACE B-E GALLERY 4F

# 'Architectural Elements'

#### Creators

Kim Minwook, **Kim Hyunsung**, Liberal Office by SWNA, Bae Sejin  
**Seo Yoonjung**, STUDIO MIICON, Studio when, Studio S.O  
**Shin Dain**, Yun Jiye, **Lee Woojai**, Im Jungjoo, Jungkim Dowon  
**Jung Jisook**, Pollygarden

#### Dancing Grid\_창작의 열개를 만드는 과정

예술과 건축 그리고 전방위적 디자인에 걸쳐 기초가 되는 그리드 시스템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매우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준다. 그리드와 함께 춤추는 발상의 전환, 그리드를 시작으로 창의성의 확장 and 변형에 관한 이야기가 이번 전시의 주제이다. 가장 단순한 작업의 과정에서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창작의 시조 격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의 무질서함 속에서도 새로운 패턴을 찾을 수 있듯이, 격자형의 그리드를 시작으로 그 틀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로이 춤을 추는 상상을 해본다. 격자의 그리드가 우리를 어떤 한정된 사고의 틀에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듯 유연함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상상력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었던 그것을 다시 현실로 구현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 'Grid'. 자연으로부터 우연한 규칙을 찾아 패턴을 발견하거나 그리드를 통해 움직이는 선을 재창조하는 생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건축과 공예 분야에 걸쳐 나누어 보려고 한다. 스페이스 비이는 이번 전시는 그리드 자체에 대한 전개라기보다는 사고의 유연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을 거 같다.

#### Space B-E

[www.spacebe.co.kr](http://www.spacebe.co.kr)

#### Instagram

스페이스비이 @be\_archived  
윤현상재 @younhyun\_offi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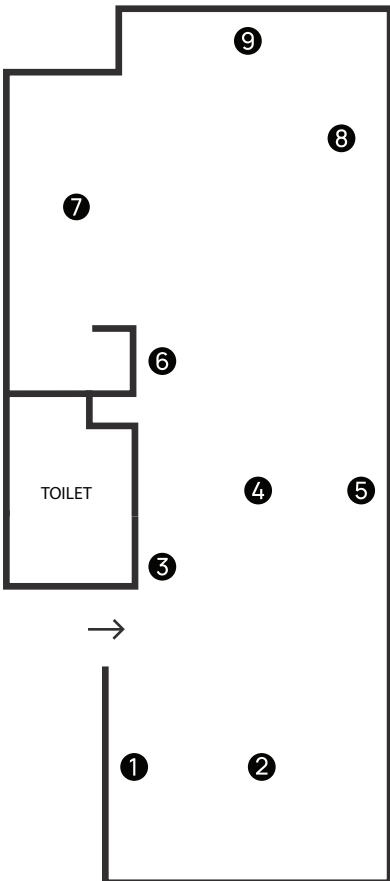
#### Space B-E Gallery 4F

'Architectural Elements' 공간을 이루는 요소인 파티션, 계단, 난간, 선반 등을 타일과 접목시키며 작가님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삶의 윗트 있는 장면들을 담아 본다.

# SPACE B-E

## GALLERY 4F

### FLOOR PLAN



### CREATORS

#### 1 김현성 Kim Hyunsung

김현성 작가는 금속을 주재료로 일상에서 쓰임이 있는 물건을 만든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은 용도에 따라 재료와 형태가 결정되는데 그 큰 흐름에서 약간씩 벗어나는 실험을 오랫동안 시도해왔다. 쓰임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독립된 존재로서 아름다운 물건을 만든다.

#### 2 정지숙 Jung Jisook

정지숙 작가는 진리가 궁금한 관찰자로서 내외면 세계를 관찰하며 모든 생명의 근원에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내재함을 발견한다. 이렇게 깨달은 '생의 의지'는 작가의 고뇌를 가볍게 해주는 열쇠가 되어 '살아있음'의 진리가 작품 세계에 표현된다. 그는 자신의 살아있는 감정과 감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며 생명력(움직인다, 숨 쉰다, 자란다, 생식·번식한다, 흡수·배출한다)을 키워드로 나, 생명체, 세계를 함께 '살아있는 덩어리'라 이름 지었다.

#### 2 스튜디오웬 Studio when

스튜디오웬은 '시간을 보는 방법'을 디자인하고자 <타임피스 프로젝트 (timepiece projects)>를 진행한다. 타임피스 프로젝트 시리즈 중 하나인 '오만 시계 프로젝트(50000 clock projects)'는 "세상에 없는 오만 가지 시계를 오만 개 만들어보자"라는 농담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이다. 시간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시계라는 매체를 재정의하고 확장시키는 과정을 통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오만 시계들이 제작되고 있다.

#### 3 스튜디오 에스오 Studio S.O

그리드의 대표적인 메스 프로덕트 산물이 타일이 아닐까 싶다. 유연하지 못한 이 소재가 공간을 덮는 마감재에서 탈피하여 다른 어떤 쓰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도이다. 타일의 측면도 하나의 소재를 드러낸다는 풀바디 타일의 특징을 살려 목구조와 함께 다양한 비율의 조화를 시도해 보았다.

#### 4 윤현상재 YOUNHYUN

윤현상재의 '룽고'는 테라코타를 컨셉으로 만들어진 기다란 모자이크 타일이다. 전시 공간의 중심에 사람들이 모여 앉는 상상을 해보았다. 수많은 건축가, 디자이너 그리고 예술가들은 격자형의 그리드를 시작으로 하지만 또 그 틀에 머무르지 않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창작의 세계를 펼친다. 선과 선이 만난 점이 무수히 많은 에너지 방향을 가지고 춤을 추듯이 말이다. 타일로 만들어진 곡선이 들어간 유연한 라운지가 우리의 일상의 작은 유틸리티는 순간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 5 신다인 Shin Dain

신다인 작가는 일상의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는 사고의 흐름을 조형적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을 해왔다. 때로는 간결하게, 어떤 날에는 끝이 날 줄 모르는 생각의 흐름이 만들어 내는 길들은 작가의 손을 거쳐 단순화된 형상으로 표현되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의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내면의 구조를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다. 하나의 형태가 그 만의 당위성을 가지기까지 작가가 어떤 사고를 하였고 그 사유들이 어떤 지점에서 교차하는지, 또 어디로 얼마나 뻗어 나가게 되는지, 그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 6 이우재 Lee Woojai

이우재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잊히거나 방치된 것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술품이 전시된 하얀 벽, 공간을 둘러싸는 벽돌과 타일, 방을 구성하는 코너는 우리의 일상에서 배경으로 희미해진 요소들이다. 익숙함에 가치를 잊어버린 종이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촉감, 재질, 구성에 아름다운 특징이 담겨 있다. 이런 요소들을 전면으로 내세움으로써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으로 인식되길 바란다.

#### 7 임정주 Im Jungjoo

Ronnan & Erwan Bouroullec이 무티나를 위해 디자인한 타일의 사용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파츠(parts)들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였다. 작가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이러와의 만남, 타일과 나무의 접촉, 그리고 타일의 구멍에서 다른 구멍으로의 연결을 의미하는 'contact'를 주제로 작업했다.

#### 8 리버럴 오피스 Liberal Office by SWNA

리버럴오피스는 SWNA에서 전개하는 디자인과 디자인 조직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SWNA 디자이너 개개인의 창작활동을 존중하며 각자의 취향과 개성이 담긴 디자인을 소개한다.

**In-Out Tile** Designer 양다예  
윤현상재의 코너 타일과 Liberal Office에서 제작된 8가지 약세서리 타일을 이용하여, 주방 조리대의 새로운 사용성을 제시하는 콜라보 프로젝트이다. 주방 오브제의 형태적 본질을 담아냈고, 코너 타일에서 볼 수 있는 부드러운 면의 흐름을 강조하여, 각진 모서리가 없는 주방 조리대를 디자인했다.

**Mosaic** Designer 이영빈  
윤현상재의 여섯가지 타일을 3D프린트 된 주방 약세서리 모듈과 함께 평면 공간에 구성한다. 점, 선, 면과 같은 시각 요소 사이의 비례에서 느껴지는 시각적 균형감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하였다. 각 타일 사이에 위치한 주방 약세서리 모듈은 주방 사용 경험을 고려한 아홉 가지 아이템을 거치할 수 있는 약세서리로 구성되어 있다.

**Shaded** Designer 조영진  
타일 간에 생기는 음영으로 생동감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타일이다. 각 모서리의 불륨 차이를 주어, 공간을 채우는 빛이 경사면을 따라 흐르면서 시시각각 다채로운 그림자를 만든다. 제품의 오랜 수명을 고려하며, 의도된 것 이외에 균더디기 없는 심플한 형상으로 디자인했다.  
\* Manufactured by STUDIO MIICON

**Hook** Designer 이동현  
우리는 살면서 종종 벽에 무언가를 걸어 놓거나 붙이고 싶은 때가 있다. Hook은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타일이다. 벽에 붙이고 싶었던 것들을 Hook 위에 걸어 두기만 하면 된다.  
\* Manufactured by STUDIO MIICON

**\* STUDIO MIICON**  
미콘은 UHPC(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라 불리는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주 재료로 가구, 제품, 패널 등에 적용하며 새로운 영역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리버럴오피스와 콜라보레이션 한 '콘크리트 타일'을 선보인다.

#### 9 서윤정 Seo Yoonjung

서윤정 작가는 평면의 화면 안에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 '인생의 낭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여기서의 낭만은 결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꼭 잃지 말아야 하는 삶의 작은 희망, 언제 어디에서나 주머니에 꼭 지니고 다녀야 하는 작고 소중한 조각이다.